

6월 출생아수 또 '역대 최저'...사망자 증가율 '역대 최대'

통계청, '2023년 6월 인구동향' 6월 2.7만명 사망...역대 최대치 혼인 건수는 2개월 증가폭 확대

지난 6월 출생아 수가 1만8615명으로 2만 명을 하회하면서 또 다시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지난해 코로나19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사망자 증가율은 6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3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출생아 수는 1만8615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6%(300명)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계절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상 같은 달끼리 비교하는데, 이는 1981년 통계가 작성된 이래 역대 최솟값이다. 월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7년7개월째 전년 대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출생아수는 4월(1만8484명), 5월(1만8988명), 6월(1만8615명)으로 3개월 연속 2만명을 하회하고 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4.4명으로 1년 전보다 0.1명 줄었다. 6월 사망자 수는 2만6820명으로 전년보다 7.6%(1900명) 증가했다.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조사망률은 6.4명으로 1년 전보다 0.5명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줄어드는데 사망자 수는 늘어나면서 5월 자연증가(출생아-사망자)는 -8205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1~6월로 따지면 전국에서 총 5만 2032명의 인구가 자연감소했다. 이러한 인구 자연감소 현상은 2019년 11월부터 3년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지난해 3~4월 코로나19 피크로 사망자가 늘어난 기저효과로 올해 3~4월 사망자가 줄었는데 5월부터는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사망자가 최대로 늘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9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던 혼인 건수는 2개월 연속 증가했다. 6월 혼인 건수는 1만6053건으로 전년 대비

7.8% 늘었다. 5월(1.0%) 대비 증가폭을 확대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은 3.8건으로 전년보다 0.3건 늘었다. 6월 이혼 건수는 7791건으로 1년 전보다 2.7%(206건) 증가했다. 조이혼율은 1.9건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했다. 이혼 건수는 지난 2월부터 5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했다. 임영일 과장은 "작년 8월부터 코로나로 인해 지연된 혼인이 1~3월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4~6월은 정체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추이를 봐야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변용일 기자

"내 취향대로 인테리어 완성"...에이스침대, '바치오' 출시

헤드보드 전면에서 자석 활용해 부착



에이스침대는 취향에 따라 인테리어를 연출할 수 있는 홈퍼니싱 콘셉트의 싱글 침대 '바치오'를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바치오는 헤드보드 전면에서 포스터, 엽서, 포토카드 등 원하는 소품을 자석을 활용해 자유롭게 부착할 수 있다. 어떤 인테리어와도 자연스럽게 매치할 수 있도록 색상은 '알파카베이지'와 '버뮤다블루' 두가지 컬러 중 선택이 가능하다. 헤드보드 전면의 원단은 발수 코팅된 패브릭을 사용해 생활 오염에 대한 부담을 낮췄다. 하단 공간이 있는 N타입 설계를 채택해 개방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전용 N타입 파운데이션을 적용해 침대 프레임의 통일감까지 구현했다. 에이스침대가 자체 개발한 '투 매트리스 시스템'으로 안락하면서도 쾌적한 수면환경을 조성한다. 투 매트리스 시스템은 매트리스 전용 스프링과 파운데이션 전용 스프링이 몸을 2중으로 받쳐줘 하중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킨다. 이슬비 기자

정부,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 대전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성수품 할인...최대 60% 할인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 안정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오는 31일부터 9월28일까지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 대전'을 공동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평년보다 가격이 비싸 소비자 물가 부담이 큰 농축수산물과 국민들이 즐겨 찾는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 추석 명절 20대 성수품, 고사리, 도라지, 전복, 마른 김 등 제수용품을 할인한다. 소비자는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농산물 7품목(배추, 무, 사과, 배, 양파, 마늘, 감자) ▲축산물 4품목(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임산물 5품목(밤, 대추, 잣, 고사리, 도라지) ▲수산물 11품목(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조기, 마른멸치, 전복, 김, 참돔, 문어, 꽃게, 업체별 자율 품목) 등이 다. 이번 행사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지에스(GS) 리테일, 수협바다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등 26개 대형·중소형 마트 등과 11번가, 마켓컬리, 쿠팡, 우체국쇼핑, 수협쇼핑, 남도장터 등 33개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한다. 전통시장에서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전통

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은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로페이 앱(APP)에서 1인당 3~4만원 한도로 20~30% 할인된 가격에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농·수산물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제로페이 농·수산물권 65세 이상 전용 판매도 실시한다.

아울러 다음 달 21일부터 27일까지는 149개 전통시장에서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은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현장 환급행사도 진행한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물,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로 가격을 점검하고,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는 등 소비자들이 할인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김현태 수산정책관은 "수산업 종사자와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한 전국의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석맞이 수산물 할인행사를 역대 최대 규모로 준비했다"라며 "그동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니, 우리 수산물을 차려상에 올리며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중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 대전을 통해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정부는 성수품 등 주요 농축수산물의 수급 상황을 살펴, 생활물가 부담 완화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유나 기자

신혼희망타운 대출금리 인상...입주 예정자들 "차 한 대 값 늘어"

HUG, 지난 30일부터 신혼희망타운 대출금리 1.3%→1.6%로

"내년 신혼희망타운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대출금리가 0.3%p(포인트) 오르면서 늘어난 이자만큼 차 한 대 값이 더 나가게 생겼습니다. 고정금리인 줄 알고 자금 계획을 다 해 놓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시위라도 나갈 판입니다."(파주여성 신혼희망타운 입주예정자 30대 이모씨) 정부가 30일부터 신혼희망타운(신희타) 전용 대출상품을 포함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일괄 인상하는 가운데, 하루 이틀 차이로 갑작스럽게 수천만원의 이자를 더 내게 된 신희타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날부터 신혼희망타운 대출금리를 연 1.3%에서 연 1.6%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최근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지난주부터 은행들에 이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30일부터 금리가 0.3%p 일괄 인상된다'는 안내문을 일제히 입주예정자들에게 돌렸다. 이러한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청약저축 혜택 강화의 일환으로 금리를 2.1%에서 2.8%로 0.7%p 올리면서, 주거복지 주요 재원인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0.3%p 인상하겠다고 지난 18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신혼희망타운은 주변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와 연 1.3%의 저렴한 고정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대신 3억원 이상의 주택은 모기지 의무가입 후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정부와 공유하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이 금리가 1.6%로 오르면서 이날부터 대출을 신청하는 입주예정자들의 부담이 커졌다. 예컨대 신희타 모기지 최대 한도인 4억원(30년 만기)을 대출받는 경우 1.3%금리일 땐 총 이자가 약 8300만원이지만, 1.6%로 오르면 약 1억원으로 2000만원 가량 더 늘어나는 것이다. 다만 국토부는 이번 금리 인상 조치 대상에서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주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은 제외했다. 이에 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주택 상품인 '뉴·홈'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단체 행동에도 나서고 있다. 전국 신혼희망타운 연합(전신연)은 지난 24일 국토부의 신혼희망타운 대출금리 인상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도 진행했다. 전신연은 "고정금리 상품에 대해 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 있다고 받아들일 신혼희망

타운 입주예정자가 얼마나 되었느냐"며 "신희타는 공공분양 청약 광고 시 '고정금리 1.3%' 슬로건을 걸었는데, 이는 공공주택의 소비자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 정부의 정책인 뉴홈은 금리인상 대상이 아니고 전 정부 작품인 신혼희망타운은 수익공유 비율은 그대로인 채 금리인상 대상이 됐다"며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주택도시금융융계약을 불과 수일 내로 날치기 통과·협약 후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주택도시기금의 대출금리 조정은 청약저축 금리 인상, 시중 대출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월 중 시행할 예정임을 이미 안내한 바 있다"며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금리에 대한 변동 가능성도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대출상품 설명 시 이미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뉴·홈'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하여도 해명을 내놨다. 국토부는 "뉴·홈은 현재 사전청약 단계로 실제 대출 대상이 아직 없고 사전청약시 모기지 금리가 변동 가능성을 동일하게 안내했다"며 "현재 대출이 이뤄지고 있는 신혼희망타운 모기지와 단순 비교가 곤란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차별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선욱 기자

"피부마찰 최대 20% 줄인다"...필립스, 전기면도기 출시

필립스코리아는 전기면도기 신제품 '5000 시리즈 클린 앤 컷'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필립스 '5000 시리즈 클린 앤 컷' 전기면도기는 360도로 움직이는 헤드로 목과 턱선 등 닿기 어려운 얼굴의 굴곡을 밀착해 면도한다. 스테인리스 면도날이 정밀하게 설계된 '컴포트 컷 시스템'은 분당 5만5000번 수염을 매끄럽고 균일하게 컷팅하는 것이 특징이다. 면도날 자동 연마 '셀프 옛지 시스템'도 장착됐다. 필립스만의 스킨 프로텍트 기술도 있다. 웨이빙 헤드는 1㎢당 10만개의 마이크로 비즈로

특수 코팅돼 피부 마찰을 최대 20% 줄였다. 임상 테스트를 통해 민감한 상태의 피부에도 자극을 최소화한 밀착면도가 가능함이 확인됐다. 셀프 스탠딩 구조를 최초로 도입해 제품을 간편하게 거치·보관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필립스는 내달 4일 낮 12시45분부터 60분간 NS홈쇼핑에서 방송을 통해 '5000 시리즈 클린 앤 컷' 전기면도기를 출시한다. 방송 중 신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은 할인가에 구입할 수 있다. 필립스 휴대용 전기면도기와 필립스 코털 제거기도 사은품으로 증정된다. 뉴스



남도장터 '최대 50%' 할인...추석 명절맞이

전남 농축수산물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가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추석 명절맞이 기획전을 마련했다. (제)남도장터는 오는 10월10일까지 청정 남도에서 길러낸 신선한 과일과 육류, 수산물 등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특별 할인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한가위, 남도장터는 한 수위 남다른 추석 특별혜택을 소다'를 주제로 약 470개의 전남 농·수·축산물을 할인 판매한다. 남도장터에 입점된 품목은 기본 10% 할인이 적용되며, 추석 기획전과 대한민국수산대전, 시·군 특별전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대량 주문에 대한 이용 편의도 제공된다. 단 일상품 20개 이상 대량 주문하는 경우 정보무늬(QR코드)로 주문 절차를 진행하고, 담당자가 별도 관리를 통해 빠르고 정확한 배송이 이뤄지도록 했다. 한가위 기획전은 남도장터 쇼핑몰 외에도 카카오, 11번가, 옥션, G마켓, 우체국쇼핑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 33개 채널과 동시 진행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남 농·수·축산물 판매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호 남도장터 대표이사는 "남도장터에서 추석 선물을 구입하면 선물 구매 부담은 줄이



고 받는 이의 행복은 커지는 넉넉한 한가위가 될 것"이라며 "전남 농축수산물 공공형 종합유통 플랫폼으로서 지역 우수 농·수·축산물을 판매·홍보하고 농가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남도장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